

3 장_호남사회연구회

민들레 교실에 피어난 로즈마리

Ako ay Pilipino

Ang dug'y maharlika

Likas sa aking puso

Adhikaing kay ganda

Sa Pilipinas na aking bayan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로즈마리’입니다. 오늘은
썩썩하고 희망찬 필리핀 노래를 타갈로그어로 불러봤어요. <민들레
교실>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연극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들의 노래를
먼저 부르곤 하거든요.

아! <민들레 교실>을 먼저 소개해야겠군요.

<민들레 교실>은 읍내에 있는 마을 사람들의 작은 공간입니다.

이곳은 저처럼 한국으로 시집 온 외국인 여성들이 모여서 연극 연습도 하고,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체험하는 곳이죠.

매주 일요일이면 이곳에는 저처럼 필리핀에서 온 여성들과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그리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많은

여성들이 모여듭니다. 마을에 사는 외국인 이주 여성은 100 여 명이 넘지만, 민들레 교실에 모이는 사람들은 40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요일 오후마다 이곳에 오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겠지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데다 읍내에 있는 이곳 민들레 교실까지 오기 위해서는 남편이 데려다 줘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고 싶다고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디 그뿐인가요? 농촌 일이란 게 주말에 맞춰 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요일이면 이른 아침부터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겨우 짬을 낼 수 있습니다. 때론 가족들의 눈치를 봐야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도 민들레 교실에 찾아오는 이유는, 이곳이 우리 이주여성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만남의 장이며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향을 떠난 지 7 년 된, 이 마을에 정착한 지 꽤 오래된 이주여성입니다.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 이미 남편의 몸이 불편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서의 생활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지만 저를 정말 아껴주시는 시어머님 덕분에 이제 제 고향은 바로 이곳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랍니다. 그런데 요즘 저에겐 큰 걱정이 생겼어요. 어머님이 자꾸 쇠약해지시거든요. 어머님과 이별을 생각하면 가슴이 내려앉는 것만 같아요. 정말 그분께서 계시지 않는 삶은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매일 이른 새벽이면 일터로 나가는 남편과는 함께 지낼 시간이 없다 보니 의사소통도 어렵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어머니는 온종일 친구가 돼주고, 때론 친어머니처럼, 언니처럼 저를 돌봐주시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분이 떠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은 어떻게 돌볼

것이며, 이웃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무거웠고, 앞날에 대한 자신도 없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주여성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들과의 교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싸여있던 저에게 ‘민들레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희망과 용기를 가르쳐주었습니다. 내게 가족의 울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사회가 나에게 커다란 울타리를 마련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민들레 교실에서 진행된 프로그램들은 정말 재미있고 다양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들은 군청에서 초청을 받아 우리 마을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구가 2 만 5 천 명인 우리 마을의 총 가구수는 6 천 가구. 그 중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약 3 천 가구라고 해요. 저처럼 이주해 온 여성들이 꾸린 가정은 무려 100 여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가정의 2 세들이 지금 한창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데, 우리 마을의 초등학교 저학년의 한 반 학생 20 명 중에서 5-6 명이 이주여성들이 낳은 2 세들이라고 해요. 그런 통계를 들려주시면서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요. 30 년 후에 우리 마을의 군수님은 우리 이주여성들이 낳은 2 세들 중에서 나올 거라고요!

그때 우린 우리들의 존재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고, 가슴이 벅차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비록 ‘빈곤한 형편’에 ‘이주민’이라는 편견, 더욱이 ‘여성’이라는 차별요소까지, 그야말로 불리한 조건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진실하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여전히 한국말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어 남편과의 의사소통이 힘들고, 자녀들과 전혀 대화를 나눌 수 없는 가슴 아픈 엄마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외마디 한국어에, 거친 모국어를 섞어 소리를 지르거나 급기야 아이들을 폭력으로 가르치는 엄마가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엄마로부터 모국어를 배울 수 없어 ‘학습 부진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이주여성들의 하소연을 듣던 민들레 교실의 한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들레 교실에서 텔레파시 특강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정말 그런 게 있어요?” 하고 바보처럼 되묻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주위는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죠.

우리들의 이런 절실한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민들레 교실 선생님들은 한국어 공부와 함께 한국어를 잘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들레 교실에서 연극을 통해 한국문화를 만났어요

민들레 교실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모두 모여 함께 연극을 만들었다는 이 연극 프로그램의 내용이 저희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어요. 우리 마을이 자리하고 있는 이곳에는 아주 오랜 옛날에 가야라는 고대왕국이 있었답니다. 이 가야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던 김수로 왕에 대한 놀라운 설화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가야의 왕 김수로는 서기 42 년에 왕이 되었지만, 결혼을 하라는 주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늦추며 “하늘이 결혼할 상대를 보낼 것이니, 나는 기다리겠다”라고 했답니다. 결국 그는 서기 48 년에 인디아의 아유타이아 왕국에서 온 허황옥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설화를 각색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공연하게 될 ‘이주여성과 한국남성의 아름다운 첫 만남’이라는 연극이었던 거죠.

우리는 이 연극을 연습하면서 기쁨에 들뜨고, 멀리 인디아에서 온 허황옥의 심정이 되어 울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민들레 교실이 우리에게 제공한 프로그램은 이것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캠프와 여행을 통해 가족들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1 박 2 일 동안 남편을 포함한 가족과 함께 캠프에 참여하면서 서로가 모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들은 남편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뭘 걱정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아내들이 아이와 가정을 두고 떠날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내를 듣고 나니 코끝이 시큰거리더군요.

그렇게 자신들의 어려움을 토로한 남편들은 자기들끼리의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주여성인 아내들 역시 서로의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고, 육아와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을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나 어려움을 의논하고 함께 헤쳐나갈 이웃을 얻게 된 거죠.

무엇보다도 즐거웠던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의 문화와 역사를 돌아본 ‘가야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는 추석에는 5 일장이 열리는 남원까지 나가서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장만하기

위한 ‘추석 장보기’를 체험해봤답니다. 장보기 체험을 통해서 주부로서 자신감도 생겼지만, 무엇보다도 큰 수확은 한국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척 따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장터에서 만난 할머니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을 만나는 게 이제 낯설지 않다는 듯 반가이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 이주여성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다면서, 고국의 가족 중에 참한 사람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다고 연락해 달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집안에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응급처치를 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또 한국의 전통적인 자가 치료 방법에 대해 배우기도 했습니다. 참! ‘아시아 민들레 김장체험’도 있었군요.

이 모든 특별한 프로그램 외에도 매주 일요일에는 어김없이 연극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역시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전주에서부터 2 시간을 달려오신 자원봉사 선생님들에 의해 한번도 빠짐없이 진행됐답니다.

선생님들은 그렇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연극을 지도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데려온 이주여성들이 연극연습을 하고 한국어 공부를 하는 동안에 아이들을 돌봐주시기도 하고요. 교통편이 없는 참가자들을 위해서 밤늦도록 기다렸다가 골짜기마다 숨은 듯 놓여있는 우리들의 집까지 꼼꼼하게 데려다 주셨답니다. 그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민들레 교실 프로그램’을 마련한 선생님들과 곧 이별을 해야 합니다.

아쉬움에 섭섭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벌써 읽으셨는지 <민들레 교실>의 선생님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계획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계획들 중에는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여성들이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문화학습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시어머니와 남편을 비롯해서 이주여성의 가족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주여성 가정의 2 세들을 위해서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의 언어, 그리고 두 문화의 매개체 역할을 할 영어교육까지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삼중언어교육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민들레 교실 프로그램을 만든 선생님들의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뤄진다면 정말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이 떠나온 조국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한국을 사랑합니다. 한국은 우리 아이들의 조국이니깐요.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이웃들이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아, 연기를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다시 연극연습에 참여해야 할 시간이에요. 우리들의 즐거운 연습시간, 잠깐 구경해 보실래요?

본격적인 연극연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모두 배역을 맡았네요. 1 장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진행하고요. 2 장에서는 허황옥을 로사리오, 베네딕타, 로즈마리, 릴리안, 레오노라, 캐더린, 플로델리자, 네미아, 카르멘, 아도가 각각 맡았어요. 김수로는 나티비다, 라이다, 조안나, 글로리가 맡았지요. 3 장에서는 마을사람을

로사살레가 말았고요. 허황옥을 멜리사, 캐더린, 베네딕타가, 그리고 아줌마는 네미아, 카르멘, 농사꾼은 로사리오, 아도, 라이다가, 행인은 로즈마리와 레오노라가 말았어요. 4 장에서 김수로는 마리셀이, 허황옥은 조안나가 말았죠.

다른 사람들이 오면 무한정 들어갈 수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리고 노래를 함께 부를 거니까 모두가 함께 만드는 연극이 될 거예요. 이제 연습을 해야 하겠죠?

민들레 아카데미에서는 연극(theatre)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웁니다.

연극대본(script)을 읽고(reading), 외우고(reciting), 연극을

하면서(present a play)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웁니다.

“자, 잘 해보자구요.”